

# ‘통일 이야기 짓기’ 수업을 통한 초등학교 통일교육 개선 방안

## Unification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 through ‘Making Unification Story’

김 래 영\*

### < 국문 초록 >

이 연구의 목적은 상상력이 통일교육에 현장감을 불러일으키고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내면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내러티브 활용 통일 수업을 구안하는 데 있다. 현재 통일교육에서 통일과 관련된 이야기는 제법 활용하고 있는 반면 통일 이야기를 스스로 지어보는 활동은 많지 않다. 따라서 이야기를 직접 지어보는 활동은 스스로 학습 내용을 구성하는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될 것이고 수업에 대한 흥미를 배가시킬 것이라는 기대 하에 통일 이야기 짓기 수업을 구상하고 이를 적용하여 보았다.

우선 수업 구상을 위해 현 통일교육을 실태를 분석하고 내러티브의 통일교육적 효과를 살펴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수업방법을 구체화하고 수업의 체계성을 부과하고자 과정 중심 쓰기 지도와 협동 작문 방법을 차용하였다. 위의 과정을 통해 개발된 ‘통일 이야기 짓기’ 수업을 학습자에게 적용하여 보고, 학생 작품에서 발견되는 통일과 관련된 내용 요소와 수업 소감 분석을 하여 통일에 대한 관심의 회복과 통일 의지의 제고라는 수업의 목적 달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 주제어: 통일교육, 통일 이야기 짓기, 내러티브(narrative), 스토리텔링(storytelling), 과정 중심 쓰기 지도, 협동 작문

\* 광급초등학교 교사

## I. 서론

학생들은 통일의 필요성은 익히 들어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 중 적잖은 수가 전쟁의 위험성, 통일이 가져다주는 효과, 이산가족의 아픔 등을 먼 나라의 이야기라 생각하기도 한다. 통일교육의 순기능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통일교육의 보다 나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치열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다면 통일교육이 그 효과성을 발휘하며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은 어떤 방향이어야 할 것인가?

통일교육 패러다임 전환의 요구에 맞추어 보다 효과적인 초등학교 통일교육을 행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그야말로 생생한 통일 수업이 필요하다. 수업의 주인공이 바로 초등학생이기 때문이다. 생생한 통일 수업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통일에 대해 실감나게 인지하고 느끼며 나아가 통일을 위해 실천하도록 이끄는 수업일 것이다. 남북한 통일 문제는 학생의 경험과 유리된 시·공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상력을 통한 초월적 이해가 필요하다. 학생들은 분단의 상황을 겪지 못했고 분단의 폐해, 예컨대 막대한 군사비용이나 이산가족 문제 등이 그들의 삶의 깊숙한 곳과 연관되어 있지 못하다. 또한 북한으로 건너가 그들의 실상을 체험해볼 수도 없다. 직접 오감으로써 북한의 모습과 분단의 현실을 느낄 수 없기에 상상력을 통해 실감나게 통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 문제, 미래의 통일 한국의 모습 등을 그려본다면 그 본질적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상상력이 발휘되는 수업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상상력이 발휘될 수 있는 영역은 다양하지만, 내러티브(narrative) 속에서 발휘되는 상상력은 아동의 삶과 관련되어 자연스럽게 발휘된다. 때문에 이를 통일 수업에 활용하였을 때는 현실과 분리된 이론 세계에서 아닌 학습자의 삶과 관련된 영역에서의 학습이 가능하도록 한다. 인간은 본래 서사적 구조(narrative structure) 속에서 자신의 이야기로써 삶을 경험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이를 통한 통일 수업은 먼 나라 이야기 같던 통일 문제를 학생들의 삶 속으로 끌어들이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오랜 기간 인간의 삶과 함께해온 내러티브를 통일 수업에 활용한다면 학습자는 경험해보지 못한 통일에 대한 맥락을 제공받을 수 있다. 단순한 지식의 주입은 통일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돕지 못하는 데 반해 맥락이 동반된, 즉 학생들의 삶과 관련된 통일 수업은 깊이 있는 이해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등장인물의 삶에 대한 대리 경험이 직접 체험해보지 못한 분단과 통일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이다.

한편 현재 학교 현장에는 내러티브를 활용한 수업이 적지 않게 이뤄지고 있다. 남북한 통일이나 북한의 일상 등과 관련된 소재를 이야기라는 친숙한 방법의 틀로써 소개하는 것은 간접 경험을 통한 지식의 확장, 작품 감상의 즐거움의 체험 등의 효과가 있다. 하지만 완결된 텍스트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학습자가 구성해가는 수업과 비교하였을 때 능동성이 결여될 여지가 있다. 또한 이야기 감상이라는 수업방식의 반복이 수업의 흥미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 내려

티브를 활용한 수업일지라도 학생이 아닌 교사가 주도하는 수업이 된다면 그 교육적 효과가 상쇄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완성된 통일 내러티브를 제시하는 수업에서 한 단계 나아가 학생 스스로가 이야기를 구성해가는 '짓기 수업'이 요청된다.

통일 이야기 짓기 수업은 말 그대로 학생들에게 통일과 관련된 그들만의 이야기를 만들도록 하는 수업이다. 학생들이 모둠을 이루어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하나의 '통일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일련의 과정이다. 이를 위해 여기서는 과정 중심 접근법을 활용하여 보다 체계적인 활동으로 구성하였고, 개개인의 인지적 부담을 줄이고 흥미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협동작문의 방법을 차용하였다. 더불어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통일에 대한 가치의 공론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야기를 짓는다고 하여 '통일 이야기 짓기'가 단순한 국어 교과와 작문활동은 아니다. 본 수업은 작문 능력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통일과 관련된 내용 요소를 찾아 체화하는 것을 강조하기에 범교과적 성격을 띤다<sup>8)</sup>. 또한 협동작문을 통하여 공동체적 가치를 내면화하도록 하고 이를 실천으로 유도하기 때문에 인지적 영역에 치우친 수업이 아닌, 전인적 통일교육이 될 것이다.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에서의 통일교육의 목표가 미래의 통일한국을 이끌어 나갈 인재 양성이란다면 그 시작은 북한 및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의 회복일 것이다. 생생한 상상력을 동원하는 '통일이야기 짓기 수업'을 통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통일에 대한 관심, 나아가 통일의식을 제고하고 통일교육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본 연구의 궁극 목적이다.

## II. 초등통일교육의 실태

### 1. 초등학교 통일교육에 대한 비판적 견해

통일교육은 미래지향적 통일관, 건전한 안보관, 균형 있는 북한관의 정립을 통해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바람직한 태도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과 북한에 대한 청소년들의 무관심은 심각한 수준이다. 통일교육협의회가 전국 중·고교생 2천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3년 청소년 통일의식 조사에서 통일과 북한 문제에 관심 없다는 응답은 27.1%, 6·25 전쟁이 일어난 연도를 모른다는 응답이 23.1%를 차지하였다. 북한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

8) 김영식(2011)은 “범교과적 통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에서 통일은 여러 교과와 관련이 있고 대북 정책 역시 여러 분야에 걸쳐 있는 총체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통일교육 역시 범교과적 프로그램을 통해 효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p. 11). '통일 이야기 짓기' 수업 역시 국어교과, 도덕교과를 비롯한 다양한 교과와 요소가 융합되어 범교과적 효과를 도모하고 있으므로 단편적 통일교육을 지양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 보인다.

(73.8%)이라는 응답이 지배적이었고,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 없다고 답한 학생이 25.7% 였다<sup>9)</sup>. 이러한 결과는 통일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반증이 되고 있다.

위와 같이 통일교육의 효과가 높지 않다는 결과가 드러나고 있으나 그 원인파악은 단순하지 않다. 그 원인으로 시수 확보의 어려움 등 구조적인 문제점도 존재하나 여러 측면 중에서도 초등 통일교육 내용과 방법에 초점을 두고 통일교육의 실태를 분석하여 보았다.

## 가. 초등 통일교육 내용에 대한 비판적 견해

### (1) 일관성과 현실성이 결여된 교육 내용

정부의 대북정책에 휘둘려 일관성 없는 내용을 교육하여 통일교육이 중심을 잃기 때문에 통일의식이 약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변종현, 2012, p. 64). 실제로 교사들은 정권교체에 따른 통일교육의 방향성 상실과 더불어 북한이 핵실험과 천안함 폭침 등을 자행하는 현실 상황에서 북한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걱정이 된다고 한다(황은실, 2011, p. 53). 학생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양면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학교에서 학습한 내용과 현실세계 사이의 불일치로 인지적 혼란을 경험할 수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통일교육의 효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변종현, 2012, p. 83).

최영표(2004)의 설문자료에 따르면 학생들의 통일교육에 대한 무관심이 무엇 때문이냐는 질문에 29.3%가 사회, 국가 문제에 별 관심이 없어서, 11.6%는 시험에 나오지 않아서라고 답하였다<sup>10)</sup>. 또한 남북분단으로 평상시에 어려움을 느끼냐는 질문에는 46.0%가 보통이라 대답하여 반응을 유보하였고, 어려움을 못 느낀다는 41.8%, 어려움을 느낀다는 반응은 11.5%에 그쳤다(p. 30). 이는 초등학생들이 평소 통일 문제가 자신의 삶에 크게 와 닿는다 생각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관심사와 멀어진 막연한 통일의 내용은 공감대를 결핍시키고 통일교육 효과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

### (2) 교육내용의 경직성과 단편성

한편 남북관계의 경직성으로 교육 내용이 경직된 경향이 있고 통일교육 담당 교사들은 자기 검열로 수동적이거나 관망하는 수업 태도가 지속되며 통일교육이 다소 표류하고 있다고 보는 시선이 적지 않다(김병성, 2011, p. 85).

아래는 이와 관련된 통일교육시 현실의 제약에 관한 교사들의 인터뷰 내용이다.

9) 부산일보 (2014. 3. 19). 통일 준비하는 법, 영·수만큼 중요하다.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40319000038> 에서 2014. 5. 2. 인출.

10) 해당 설문은 2004년 전국 6군의 지역에서 450명의 4~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본 질문에 대한 이외의 답변은 도서, 잡지 때문에 (26.4%), 수업자료나 방식이 재미없어서(19.1%), 공부 내용이 재미가 없어서 (12.4%)로 개인주의적 성향, 관련 자료의 문제, 재미없는 수업 등 복합적 원인이 작용하여 통일교육에 대한 무관심으로 도출되었다고 보인다.

<표 II-1> 초등교사 인터뷰: 통일교육의 제약11)

Q1. 선생님께서 통일교육을 실시하였을 때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현실의 제약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A (초등학교 교장 경력 38년)	지침서에 의해서만 교육을 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통일교육지침서에 의한 교육을 해야 하고, 제가 저경력 교사일 때는 반공교육지도서에 한하여 통일교육(반공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지침에 의한 수업을 해야 했으므로 당연히 다양성이 제약될 수밖에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수업할 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B (초등학교 교사 경력 23년)	범교과 학습요소가 너무 많아 일단 시수 확보부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미리 확보를 하더라도 급하게 잡힌 학교 행사가 있으면 통일교육이 1순위로 대체되곤 했죠.
C (초등학교 교사 경력 16년)	초등학생은 아무래도 통일이 와닿지 않는가봐요. 쉽게 설명하려 해봐도 애들이 자기중심적이어서 그런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더라고요. 교과서 이야기를 읽고 그거에 대한 활동을 하는게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실제 북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인터넷 기사 하나를 보여주려고 해도 민감한 사항이니 함부로 보여주기도 그렇고요.
D (초등학교 교사 경력 3년)	교사부터 통일에 대한 생각이 정립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저같은 교사를 위한 연수의 기회가 필요하고 현장성과 최신성을 반영한 통일교육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A교장선생님의 답변을 살펴보면 자기검열 때문에 수업 내용이 다양하지 못했다는 점을 어려움으로 꼽고 있다. C선생님도 객관성 확보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자료는 수업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학교 통일교육의 실태와 과제를 연구한 자료에서도 통일교육 주체의 측면에서 자율성이 극히 제한되어 왔다고 지적한다. 남북한의 극단적인 이데올로기의 대립 등 통일 논의에 대한 개방적 입장을 취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사들은 정부에서 제시한 자료를 전달하는 입장에 머물렀고, 그 부담감으로 다양한 교육을 꺼려했으며 이에 따른 예상치 않은 학생들의 반응을 매우 우려했다고 밝히고 있다(이미식, 2004, p. 156).

단편적인 통일교육은 학생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거나 통일 문제에 대한 전체적(holistic) 시각(변중현, 2014, p. 336)을 견지하는 데도 어려움을 주고 있다. 통일은 전문가들도 쉬이 해결하기 어려운 총체적 난제이다. 경제, 군사, 사회 제도, 문화, 민족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더불어 북한 사회에 대한 포용이 필요하다. 통일의 일부분만을 강조하여 경제적 논리로 환심을 사려하거나 공감되지 않는 민족성에 호소한다면, 학생들로 하여금 전체적 시각을 통한 다각적 조망을 어렵게 할 수 있다.

11) 해당 인터뷰는 연구자와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중 경력 별 소수인원을 선별하여 행한 것으로, 초등교사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지만 통일교육의 실태를 가까운 현장으로부터 추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인터뷰에 응한 교사들은 대부분이 통일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고 현실의 제약이 많다는 의견을 보였다.

나. 초등 통일교육 방법에 대한 비판적 견해

초등 통일교육의 내용에 이어 방법에 대한 비판적 견해 중 박제된 교육방식으로 통일교육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는 학생들이 흥미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교과서 내용을 교사들이 강의식, 주입식 방식으로 행해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김병성, 2011, p. 87). 동일한 수업 방식이 자칫 통일문제의 현실성을 인식하는 데 방해가 되거나 통일교육 전반에 대한 흥미도를 반감시킬 수 있는 것이다(변종현, 2012, p. 89).

한편 “학교에서 통일교육은 흥미로운가?”라는 질문에 학생들이 ‘그렇다(7.9%)’, ‘보통이다(19.3%)’, ‘그렇지 않다(72.8%)’라는 반응을 보여 통일교육에 흥미가 없다는 답변이 나오기도 하였다(윤용상, 2002, pp. 37-38)<sup>12)</sup>.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로는 ‘알고 싶지 않기 때문(6.9%)’, ‘이미 알고 있기 때문(0%)’, ‘내용이 어렵기 때문(33.3%)’, ‘선생님의 설명 위주 때문(59.8%)’이었다. 또한 통일교육 시 교과서 외의 자료를 접해본 적이 있는냐는 질문에는 있다고 대답한 학생이 전체의 25.7%였고 나머지(74.3%)는 없다고 대답하였다.

실제로 수업을 행하는 교사의 입장의 교육 방법과 관련된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II-2> 초등교사 인터뷰: 통일교육 활용 자료

Q2. 선생님께서 통일교육 시 가장 많이 활용한 자료 (수업 방식)는 어떤 것 입니까?	
A (초등학교 교장 경력 38년)	강의식 수업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반공 포스터 그리기, 40-50년 전부터 있던 통일문제라는 책의 내용도 소개했습니다. 동화에 관심이 많아 동화책을 많이 소개했던 것 같습니다. 반공응변대회도 개최했었습니다.
B (초등학교 교사 경력 23년)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자료들을 그대로 갖다 쓰죠. 개인적으로 통일교육 수업자료를 개발할 여력이 없습니다. 인디스쿨, 초등 아이스크림, 통일 교육원의 동영상이나 학습지를 많이 이용합니다.
C (초등학교 교사 경력 16년)	교과서와 지도서를 위주로 활용합니다. 학교에 배부된 자료들도 가끔 사용하긴 하지만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객관성이 떨어지는 자료는 될 수 있으면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예요.
D (초등학교 교사 경력 3년)	내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과서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게 돼요. 교과서에는 이산가족이나 북한 어린이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잖아요. 단지 글을 읽고 생각해 보는 활동을 많이 했어요. 가끔 교육용으로 제작된 동영상을 통해 수업을 하기도 하고요.

인터뷰 내용 중 A교장선생님의 답변을 보면 반공포스터 그리기, 반공응변대회 실시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실제로 현재 실시되는 학교행사에서 반공 관련 활동은 사라졌지만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서 출발한 남쪽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행사가 만연되고 있음이 지적되기도 한다. 단

12) 이 조사는 2001년에 행해졌으며, 이는 인천의 공립 초등학교의 2002년 2월 졸업예정인 6학년 3개 반 학생 140명을 대상으로 한 결과이다.

지 '반공'이라는 말에서 '통일'로 바뀐 행사들이 준비하다는 것이다(정향석, 2003, p. 121). 통일교육의 본질을 추구하기보다 관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행사를 통해 학생들의 통일의식을 고취하길 기대하긴 어렵다. '통일'이라는 타이틀이 붙는 활동이 진정으로 학생들의 통일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B, C, D 교사의 인터뷰 내용을 살펴봐도 통일관련 콘텐츠를 활용하려는 시도는 보이지만 학습자가 주도적이라기보다는 교사에 의해 주어진 내용을 학생이 받아들이는 형식의 수업이 주로 행해지고 있으며 교과서 수업을 할 경우에는 이야기를 읽고 물음에 답하는 정도의 수업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인터뷰가 통일 수업의 모든 것을 대변해주지는 못하지만, 공통적으로 현장의 교육이 통일교육의 본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견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이 통일 수업에 열렬한 관심을 가질 만큼의 수업 환경이 조성되기는 어려운 실정인 것이다.

## 2.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개선 방향

앞서 살펴본 내용과 같은 통일교육의 내용과 방법적 측면에서의 비판점들을 떨쳐내는 통일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통일에 대한 관심 회복이 급선무인 시점이다. 그 전향점을 찾기 위해 위와 같이 통일교육의 내용과 방법적 측면에서의 분석을 시도하였다.

보다 효과적인 통일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인지, 정의, 행동 영역의 통합적 발전을 꾀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통일 문제 상황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고 균형적인 시각으로써 문제해결에 참여해야 하며, 공동체 의식과 주체적 통일의식으로 통일에 대한 자신감을 지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이를 실천하려는 의지도 가꿔야 한다.

구체적으로 수업의 내용과 방법 측면에서 살펴보면 수업 내용의 질적 발전을 위해서는 통일교육에 대한 현실감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삶과 맞닿아있는 통일교육 내용을 구성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다(변종현, 2012, p. 86)13). 삶의 맥락성이 떨어지는 수업은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반면 학생들 스스로가 통일이 자신과 관계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통일교육의 효과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정탁준, 2013).

통일교육은 시간적 차원에서 과거가 아닌 현재에서 출발해야 하며 공간적 차원에서는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공간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오기성, 2012). 분단의 상황에서 당시의 비극을 강조하거나 굶주리는 북한의 어린이들의 고통을 억지로 떠올려보게 하기 보다는 현재 학습

13) 변종현(2012)은 “초등학교 학생들의 발달단계를 고려할 때 이야기를 활용한 활동 중심의 접근은 통일문제를 자신의 삶과 가까운 것으로 만들어줌으로써 학습의 효과가 높고 학습내용의 구성도 비교적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단지 이야기를 읽고 활동하는 학년 간 차이가 거의 없는 수업방식은 통일에 대한 의지와 역량을 키우는 데 한계가 있다고 비판한다.

자가 서 있는 시·공간 배경 속에서 통일이 주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파악해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생들의 삶과는 유리된 북한의 사회 구조, 이념 등 제도적 차원보다는 문화적 접근이 효과적일 것이다. 생활 속에서 쉬이 접하는 가정생활 모습, 의식주, 유교 문화적 관습 등을 탐구하며 북한이 우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웃이라는 인식을 통해 괴리감을 줄어나갈 수 있다.

한편 방법적 측면에서의 통일교육 전환의 핵심사항은 학습자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새로운 교수 방법과 학습기법을 다양하게 개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sup>14)</sup>.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통일 수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틀에 박힌 교수 방법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것이 단순히 아동의 흥미와 관심거리에 초점을 둔 오락성 수업의 추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수요자 중심이라는 것이 수요자의 요구를 모두 수락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수업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일교육의 목표를 염두에 둔 틀 안에서 학생들이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을 고안해내야 한다.

이런 수업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내러티브를 활용하는 것은 긍정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학생들은 이야기를 통해 상상력을 발휘하여 과거와 미래, 다른 공간과의 차원을 초월하여 이해하며, 문화이해지(culture assimilator)<sup>15)</sup>를 가능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를 통해 즐기는 통일교육 분위기를 형성하고 상상의 과정에서 통일에의 비전을 그릴 수 있다. 그렇다면 실제로 내러티브가 통일교육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고 그 의의와 교육의 효과는 무엇일까?

### Ⅲ. ‘통일이야기 짓기 수업’의 이론적 배경

#### 1. 내러티브와 통일교육

학생들의 흥미를 자극하되 단순히 재미 위주의 수업이 아닌 진지한 통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그들이 통일 수업의 주인공이 되는 경험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내러티브를 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내러티브가 학습의 흥미를 유발하고 학습자의 삶과 관련한 학습이 되도록 유도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내러티브의 개념과 교육적 효과가 무엇인지 이를 활용한 통일 수업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통일 이야기 짓기 수업’을 구체화 하고자 한다.

14) 오기선. (2010.7.5). 이중성 인식시키는 통일교육 해야. 통일신문. 2014.4.1.  
[http://www.unityinfo.co.kr/sub\\_read.html?uid=8105&section=sc4&section2=](http://www.unityinfo.co.kr/sub_read.html?uid=8105&section=sc4&section2=)

15) 문화이해지란 문화 간 훈련의 방법으로 서로 다른 문화권 사람들이 그 문화 차이로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여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여러 방면으로 상정해 놓고 때에 따라 상대방의 행동 이유를 문화적 배경 속에서 다각도로 살펴보도록 하는 것이다(Fiedler, F. E., Mitchell, T. & Triandis, H. C., 1971, p.96).



### 가. 내러티브의 개념과 스토리텔링 교육

내러티브는 '말하다', '서술하다'의 뜻을 지닌 라틴어 'narro'에 기원을 두고 있다. 본래 인간의 경험은 특정 사건 자체일 뿐이나 내러티브로써 그 경험을 유의미하게 삶과 연관 짓고 이를 서술해온 것이다. 인간이 오랫동안 내러티브를 통해 삶을 이해해 왔기 때문에 이는 세계에 대한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조직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 되었다(손유정, 2009, p. 14). 즉 인간이 사회·역사적 삶에서 경험하는 사건이나 체험을 이해하고 전달하는 효과적 도구가 바로 이야기(narrative)라는 것이다(이규호, 1988, p.27). 여기서 이야기는 내러티브의 산물일 수도 있고 이야기하는 행위, 과정을 일컬을 수도 있다. 즉 서술의 내용이자 서술 방식이라 볼 수 있다.

이야기를 전달하는 행위에 초점을 둔다면 내러티브는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의 개념과도 연결 지을 수 있다. 단, 여기서 스토리(story)를 말한다(telling)는 것은 단순히 음성언어를 통한 스토리의 재서술을 뜻하지는 않는다. 그 서술 방식은 다양할 수 있고 넓은 범위에서 이야기를 창조하는 것을 포함할 수도 있다. 다음은 스토리텔링의 일반적 해석이다.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의 사전적 의미는 목소리와 행동을 통해 한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청중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미국 영어 교사 위원회에서는 스토리텔링을 음성(voice)과 행위(gesture)를 통해 청자들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스토리텔링은 '스토리(story)와 텔링(telling)'의 합성어로서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바를 재미있고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강한균, 김희용, 김두규, 2011, p. 304).

이 정의에서 보면 스토리와 이야기를 동의어로 보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야기는 스토리의 집합체라고 볼 수 있다. 하나의 완결된 이야기는 작은 '상황의 변화'들 즉 하위 사건들이 인과성 있게 연계되고 통합되어 점차 상위의 크고 중심적인 사건을 이루는데, 그 자초지종이 스토리라는 것이다. 또한 텔링이 단지 '이야기하기'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 짓기'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스토리텔링을 어떤 형식과 매체를 사용하여 사건을 서술하며 스토리를 짓고 만듦으로써 의미를 형성하고 체험하는 행위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최시한, 2009, p. 424).

요약하건대 내러티브란 인간의 삶의 영역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맥락 안에서 이뤄지는 것이고, 그 서술 내용과 방식을 모두 포함한다는 측면에서 스토리텔링과 개념적 연관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학교수업이 학생들로 하여금 사회로 나가기 위한 준비 및 선경험(先經驗)을 목적으로 한다면 인간의 삶의 부분인 내러티브는 아동의 삶과 유리되지 않은 효과적인 수업의 장치로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통일교육과 연관 지었을 때 내러티브가 지니는 구체적인 교육의 효과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를 활용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통일 이야기 짓기 수업'의 방향성 및 교육적 배경을 마련하고자 한다.

## 나. 내러티브의 통일교육적 효과

### (1) 맥락과 체험의 제공

첫째, 내러티브는 맥락과 체험을 제공한다. 이야기 속에는 인물, 사건, 사태의 정황과 사건의 의미 등 내재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그리고 통일 이야기는 내러티브의 내재적 요소 속에 통일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포함한다. 학습자들은 자신의 맥락에 맞추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해석한다고 볼 때 내러티브는 학습자의 경험과 이야기를 결합시키고, 해당 맥락 속에서 통일교육의 내용을 습득하도록 한다. 즉 내러티브는 종합적인 인식의 틀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아울러 내러티브는 통일에 대한 지식과 실천의지의 내면화에 체험성을 제공할 수 있다. 아동은 북한의 실상 및 통일 문제와 연관된 우리나라의 정황을 절감하지 못하고 있다. 자신의 삶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러티브를 통해 주관화, 내면화, 정서화 등의 요소를 통해 간접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통일 문제와의 심리적 거리감을 줄여줄 수 있다.

둘째, 내러티브는 상상력을 제고할 수 있다. 통일 작가에 의해 기획된 내러티브(동화) 자체로도 학습자의 상상을 자극시킬 수 있지만, 학습자 스스로 이야기를 지어보는 경험은 그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 해당 이야기 속에는 자신의 경험, 가치관, 세계관, 통일과 관련된 지식, 미래에 대한 전망 등 복합적인 요소가 녹아들어가기 때문이다. 통일 이야기 작문을 통해 통일된 사회를 절실하게 꿈꿀 수 있는 수업이 이뤄진다면, 즉 통일 내러티브의 요소에 대한 긍정적인 종합(상상력의 발휘)이 가능하다면 통일에 대한 관심 제고는 물론이거니와 통일의 주체로서 부단히 실천하는 시민으로의 양성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통일 이야기의 구성 경험은 학습자로 하여금 작가의식(authorship)과 책임감 있는 통일 의식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학습자는 이야기 속 주인공이 통일 비전을 가지고 정의로운 행동을 하도록 구성할 것이고, 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주인공에의 동일시 과정에서 스스로에게 책임을 부과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의 이야기가 독자들에게 의해 읽혀질 것이라는 점, 즉 다른 이와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공언(declaration)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미래의 통일 한국에서 역량을 발휘하는 도덕적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통일교육의 주요한 목표라고 본다면 내러티브를 통한 작가의식의 형성은 이와 관련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것이다.

넷째, 학습에 대한 관심과 동기의 지속 효과가 있다. 통일에 대한 관심과 동기의 유지에는 학습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가 선행되어야 한다. 내러티브는 그 구조 자체가 호기심을 유발하도록 한다. 내러티브의 주제, 맥락과 인물, 사건의 유기적 결합이 아동의 흥미와 호기심을 발동시키는 것이다. 학습자가 호기심을 가지게 되면 뇌가 활동 에너지를 호기심의 대상에 집중시키고, 이 때 좌우 대뇌피질에 있는 전두엽 부위의 활동이 왕성해져 집중력과 창의성에 큰 영향을 주는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이 왕성히 분비된다. 도파민은 인간이 행복감을 느낄 때 분비되는 물질인데, 이를 통해 학생들은 수업에서 긍정적인 정서를 가지게 되고, 결국 이는 수업에 대한 주의 집중과 지속적 관심으로 발전될 수 있다(조정연, 2008, p. 29).

## 2. 과정 중심 쓰기 지도

이야기 짓기 경험이 통일 교육에 있어 유효하다는 점에서 활용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글은 나름의 유기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글감을 던져주고 막연히 쓰라고 지시할 수는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함께 본 연구는 작문 교수법 중 과정 중심 쓰기 교수법의 이론적 틀을 활용하여 이야기 짓기에 체계성을 부여하고자 했다.

### 가. 과정 중심 쓰기의 단계와 지도 시 유의점

대체로 쓰기 교육에서 쓰기 과정을 전·중·후와 같이 시간으로 나누거나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표현하기, 고쳐 쓰기의 단계로 설정해 왔으며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다. 다음은 국어과 교수 학습 방법의 쓰기 단계별 지도 과정과 유의사항을 요약한 표이다.

<표 III-3> 과정 중심 쓰기 지도 단계에 따른 지도 내용과 유의사항16)

쓰기 전		초고쓰기 단계		쓰기 후 단계	
글을 쓰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조직하는 단계		전 단계에서 구상한 내용을 문자로 실체화하는 단계		초고의 잘못된 내용을 수정하고 교정한 뒤 최종원고를 작성하는 단계	
계획하기	글의 화제, 목적 독자 형식 등의 탐색	강한 전략	표현이나 아이디어가 불완전하여도 수정하기 단계에서 고쳐 쓸 수 있도록 함.	수정하기	비판이나 평가가 아닌 개선에 목적을 둔 활동으로 추가, 대체, 삭제, 재조직 등의 방법 사용
내용 생성하여 조직하기	브레인스토밍, 열거하기, 의미지도 그리기, 말로 설명하기, 내용 구조도 그리기, 개요 작성하기	약한 전략	완벽하게 초고를 쓸 수 있도록 함.	편집하기	출판을 준비하는 단계로, 최종원고를 작성하기 위해 교정하는 단계
				출판하기	자신의 글을 다른 이들과 공유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 간단한 책부터 문집 만들기 까지 다양함
- 독자지향적인 글이 아닌 자기 중심적 글이 되지 않도록 독자의 지식과 흥미를 고려하도록 지도함. - 화제를 선택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좋음. (예컨대 조사를 통하여, 책의 목록에서, 매일의 일상에서, 그림의 자극으로부터 등)		-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등의 규범과 어법보다는 내용에 신경 쓰도록 함.		- 글쓰기의 흥미와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방법 중 하나가 출판하기가 될 수 있음 독자를 상징하고 글을 쓰도록 하여 글을 쓰는 자부심과 즐거움을 느끼게 함.	

16) 국어과 교수·학습 방법 (pp. 197-212) 최지현 외. 2007. 서울: 역락.을 표로 정리한 것임.

### 나. 과정 중심 쓰기의 통일 교육적 의의

과정 중심 접근을 통한 쓰기는 교육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고, 이는 통일교육에도 유의미하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손연정, 2004, pp. 19-21).

첫째, 과정 중심 접근은 쓰기 행위를 ‘의미를 구성하는 활동’으로 파악하여 학습자 주도의 통일 수업으로 이끈다. 과정 중심 접근에서는 문법이나 수사학적 규칙보다 글 자체의 의미와 내용을 강조하며 창조 과정 자체가 유의미하다고 본다. 따라서 지식을 스스로 구성하며, 구성된 지식을 변형적 사고를 통해 이야기로 거듭나게 하는 과정 중심 쓰기 접근은 능동성의 제고라는 측면에서 통일교육적 효과가 인정될 수 있다.

둘째, 과정 중심 접근은 쓰기에 있어서 개인차를 존중하여 수요자를 배려하는 통일 교육의 취지를 살린다. 이 접근법은 개인의 학습 양식, 흥미, 적성 등을 고려하므로 학습자로 하여금 수업 방식의 선택권을 획득하도록 한다. 교사에 의한 일방적 수업이 이뤄지고 있어 이로 인해 파생되는 통일교육의 비효율적인 측면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에 반하여 과정 중심 접근법은 수업의 초점을 학습자로 돌리도록 하여 학습자를 심분 배려하는 수업이 될 것이다.

셋째, 과정을 중시한다는 것은 쓰기 과정의 협의 활동을 강조하는 것이다. 사회적 의사소통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통일의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통일 교육에서 원하는 이상적인 수업의 장면 중 하나는 학생들 간 또는 교사와의 의사소통이 활발히 일어나는 수업 현상이다. 과정 중심 쓰기 접근법은 친구와 함께 쓰기 전 협의 활동을 진행하고, 협동 작품을 창작할 수도 있으며 글을 쓴 이후에 서로의 글을 고쳐주기도 한다. 본 수업은 협동 창작이 주된 내용이므로 긴밀한 협업을 중시하는 과정 중심 접근법의 적용이 필요하다.

## 3. 협동 작문 교육<sup>17)</sup>

상상력을 통한 생생한 통일 이야기 짓기의 협동 경험은 개인의 창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협동 작문활동이므로 타인과의 협상을 통한 의미 구성이라는 측면에서 공동체의식과 문제해결 능력의 향상을 도모할 것이다. 더불어 타인과 통일의 가치를 공유하는 경험이 보다 심도 있게 이뤄질 것이고 개인 활동에서 간과될 수 있는 상호작용 과정에서의 학습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협동 작문의 전략을 ‘통일이야기 짓기 수업’에 적용해보는 것은 유의미한 시도가 될 것이다. 다음은 협상을 통한 의미 구성 과정과 협동 작문 전략을 간략히 제시한 것이다.

17) 이 부분은 박영목 교수가 정립한 협동 작문 교육 내용을 정리하여 통일 수업과 접목시킨 부분이다. 이를 위해 『작문 교육론(2008)』, “협상을 통한 의미 구성과 협동 작문(2001)”, “작문 지도 모형과 전략(2006)” 등을 활용하였다.

### 가. 협상을 통한 의미 구성 과정과 협동 작문 전략

협동 작문은 말 그대로 협동 학습을 통해 작문 활동을 하는 것이다. 여기서 협동 학습이란 제각기 다른 배경과 능력을 가진 구성원이 언어를 통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상호의존적인 학습 활동이다. 작문 활동 자체가 타인과 의사소통을 위해 행해지는 것이고 이는 본질적으로 사회적 기제의 일환으로서 일정한 사회적 맥락에서 수행되므로 협동 학습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21세기는 복합적 작문 활동을 요구하므로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회적 상호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협동 학습을 활용한 협동 작문 교육이 대두되고 있다(오택환, 2007, pp. 231-232).

협동 작문 활동은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지식을 변형시키고 끊임없이 타인과 의미를 협상해야 하는데, 이는 예컨대 수사학적 상황 읽기, 목표 설정하기,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와 조직하기, 재고하기와 수정하기 등을 위한 전략적 사고 활동에 의존한다.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과정은 교실 문화, 학생의 경험, 교수 방식, 학습 방식 등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다. 아울러 협동 작문 역시 과정을 중시하고 있으므로 과정 중심 접근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협동 작문의 의미 구성을 위해서는 계획을 위한 전략, 계획의 실행을 위한 전략, 평가와 검증 전략이 필요하다. 그 중 계획하기는 유형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다. 아이디어 생성을 위해 브레인스토밍이 필요하고, 이후에 적정한 휴식과 함께 아이디어를 배양하는 과정을 거치며 구성원 각자의 아이디어 설명을 하는 것이다. 이어화제의 구조도를 작성하고 협동적 계획을 세우도록 한다.

이어 작문 과정에서 계획하기 능력을 효과적으로 신장시켜주기 위해서는 협동적 계획하기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글의 목적, 요점, 예상 독자, 텍스트의 구조에 관한 일반적 원리 등의 활동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쓰기 활동과 연관되는 여러 목표를 통합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해야 하고 스스로의 사고 활동에 대한 반성적 사고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획의 실행을 위한 전략은 기존의 텍스트를 재활용하기, 특정 텍스트를 모방하기, 작문 모델 참조하기, 필자 고유의 모델 설계하기, 내용 전개를 위한 텍스트 작성 규칙 이용하기 등으로 구성된다. 유용도가 높은 텍스트 작성 규칙은 요점 중심으로 텍스트 조직하기, 일반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것으로 아이디어 배열하기, 서사와 연대기, 묘사와 비교, 인과 등을 이용하여 아이디어 연결하기, 그림 정보를 활용하여 텍스트 작성하기 등이 필요하다. 이때는 예상 독자를 고려해야 하며 모델을 참고하되 잉여 내용을 만들지 않도록 하고 전체적 상황과 어울리는지를 점검하도록 한다.

마무리 단계인 평가와 검증 전략은 필자 중심이 아닌 독자 중심 텍스트로 전환하기, 텍스트를 미시적인 측면과 거시적 측면에서 초고 검토하기, 예상 독자의 검토 과정을 통한 초고 검토하기 등의 활동으로 구성된다. 단, 개인이 협동 작문 과정에서 텍스트의 일관성의 문제를 중시하여 자신의 의사에 제약을 과하게 가하다 보면 이 학생이 작성한 텍스트는 자신의 창의적인

사고와 개성이 죽어버린 텍스트로 전락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필자는 협상의 과정에서 갈등의 해결로 인하여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지는 않는지를 면밀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전체적인 협동 작문 과정에서 유의미한 협상이 도출되려면 역할이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작문 목표와 계획, 작문 과제에 대한 의사결정의 통로가 명시적으로 밝혀져야 하고 집단 구성원의 능동적 참여가 필수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구성원을 효과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작문을 통해 해당 담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담화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흥미와 확신감을 줄 수 있도록 정체성을 지니고 글을 쓰도록 해야 한다. 쓰기 집단의 성패는 구성원 간의 신뢰성과 반응의 즉각성에 달려 있으므로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교사의 역할이 막중하다.

#### 나. 협동 작문의 통일 교육적 의의

협동 작문 활동은 학생 개별의 인지적 작용이면서 교사와 학생, 텍스트와 맥락의 상호연관을 통하여 의미를 구성하는 사회적 작용이다. 이는 학습의 기초를 닦는 작업이 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경험 세계를 확충하고 바람직한 인성과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박영목, 2008, pp. 164-165). 협동 작문은 본질적으로 사회성을 기초로 하고 있고, 미래의 통일 인재상 역시 다양한 가치를 수용하고 새로운 가치를 받아들이는 유연함을 요구한다. 유연함과 같은 사회성은 갑자기 생성되거나 본래 타고나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과의 관계 경험을 통해 습득할 수 있는 것이다. 통일교육의 책무성 내지 방향과 연관 지었을 때 협동 작문의 기회는 통일 공동체와 통일한국의 역량 강화를 위한 유익한 시도가 될 것이다.

## IV. ‘통일 이야기 짓기 수업’의 개발 및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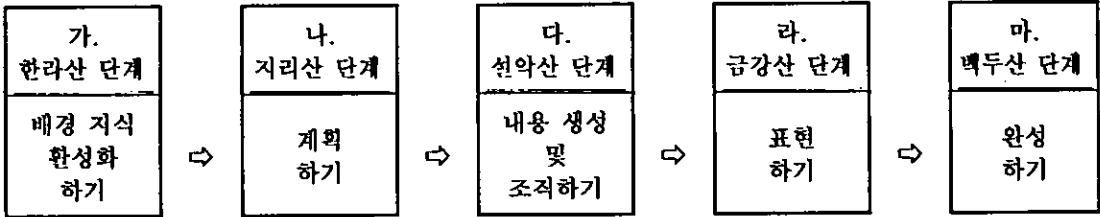
### 1. ‘통일 이야기 짓기 수업’의 단계 설정

글쓰기의 과정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뒤엉켜 있다면 좋은 작품을 기대하기 어렵거니와 그로 말미암아 통일에 대한 관심 환기라는 수업의 목적 달성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수업 목표를 견고히 하고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체계적인 글쓰기 지도가 필요한 가운데, 과정 중심 쓰기 지도법과 협동 작문 방법의 큰 틀을 활용하여 ‘통일 이야기 짓기 수업’의 절차를 구상하였다<sup>18)</sup>.

18) 수업의 절차는 남북한에 위치한 산의 명칭을 차용했다. 통일의 과정이 등산의 과정처럼 쉽지 않은 여정이며 오랜 기간 단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착안하였다. 또한 한반도 남단에서 북단까지 각 산을 거쳐 가며 성취감을 맛보도록 하고, 통일된 한반도의 상을 그려보며 통일의 가능성을 내면화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

다음은 각 절차에 대한 간단한 소개이다.

<표 IV-5> '통일이야기 짓기 수업'의 절차



이야기 짓기 전 가장 먼저 하는 활동은

가. 한라산단계, 즉 '배경지식 활성화하기'이다. 학생들은 사고의 틀에 가지고 있는 내용물을 다양한 생각 도구들을 활용하여 변형하여 창출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수업에서는 기존의 통일 지식을 변형적 사고를 통해 이야기로써 상상하여 표현하도록 유도한다. 학습자가 가진 내적 가능성을 충분히 살리고 변형적 사고의 작용이 활발히 일어나도록 배경지식을 활성화하는 단계를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단 여기서는 배경지식을 바로 글쓰기의 재료로써 승화시키기보다 학습을 위한 기본운동의 측면에서 가볍게 다루도록 해야 한다. 학생들의 배경지식으로서 통일 이야기로 다뤄질 수 있는 분야, 예컨대 북한 주민의 생활 모습, 새터민의 한국 적응기, 통일의 효과, 분단의 역사, 미래의 통일 한국 등의 내용을 이야기를 짓기 전 단계에서 상기하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

나. 지리산 단계-계획하기에서는 작문의 목적을 확인하고 글짓기의 모든 과정(단계)에 대한 안내가 이뤄진다. 작문 활동에서는 예상 독자를 설정하고 작문 활동의 역할분담도 명시해 주어야 한다. 예상 독자를 설정하는 것 그 자체로 동기가 유발될 수 있다. 자신의 글이 누군가에게 읽혀진다는 것 자체가 작품의 질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시간의 제약성에 대한 대응으로 역할 분담을 통해 효율적인 협동 작문 활동이 되도록 돕는다.

다. 설악산 단계-내용 생성 및 조직하기는 글의 재료가 되는 글감과 이야기의 기본 구성 요소인 인물, 사건, 배경을 구성하는 단계이다. 각 글감, 인물, 배경 등의 요소에 대해 개인이 의견을 내놓고 협의를 통해 구성 요소를 확정·구성하도록 한다. 시간 제약이 클 경우에는 사전과제로 제시하거나 교사가 미리 선택 가능한 모델을 준비하여 개인이 인물과 배경을 선택하도록 한 뒤 협의를 통해 확정짓도록 할 수도 있다. 사건을 구성할 때는 이야기의 흐름을 해치지 않도록 릴레이 작문을 활용할 수 있다. 시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포스트잇을 사용하는 것도 좋다. 단,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글의 목적을 수시로 상기하는 것이다. 이야기가 무의미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 반성적 사고를 위한 발문이 교사에 의해 빈번히 제공되어야 한다.

라. 금강산 단계-표현하기는 문장으로써 직접 표현하고 수정하는 단계이다. 전체의 이야기를

모듬원 수에 맞게 장면으로 나누어 각자 맡은 장면을 자세히 서사하는 활동이 주가 된다. 이때는 자기검열이 표현의 창의성과 유창성을 방해하지 않도록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표현활동이 되도록 유도한다. 고쳐 쓸 때에도 언어 사용 측면 보다 내용 및 목적을 중시하여 글을 읽을 독자가 해당 이야기를 읽고 감화될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메타인지 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마. 백두산 단계-완성하기는 것은 전체적 흐름을 검토하는 것 외에 책(문집 또는 미니북)의 표지 만들기 및 삽화 넣기, 전시하기의 과정이 포함된다. 또한 완성된 이야기를 서로 공유하며 발견되는 가치를 공론화하는 활동이 반드시 행해져야 한다. 이야기를 만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느끼고 배운 점을 확인하고 서로에게 피드백을 줄 수 있을 때 수업은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 완성된 이야기 다른 학년도 읽을 수 있도록 도서관 등에 비치하여 이야기에 대한 감상과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한다.

## 2. 수업의 설계 및 적용

### 가. 수업의 설계

수업의 단계와 요소를 포함한 교수·학습 활동의 실체를 아래의 표와 같이 요약하였다.

<표 IV-7> '통일 이야기 짓기 수업'의 교수·학습 활동

수업의 단계		교수·학습 활동	수업의 요소
1	한라산 배경지식 활성화 하기	- 전시학습 상기 (통일 관련 영상과 도서 확인) - 동기유발하기 (통일 이야기 작가 소개, 완성된 작품 도서관 전시 예정 안내) - 학습 주제 및 활동 안내	* 사전활동의 확인
2	지리산 계획하기	- 역할 분담하기 - 활동 목적 생각하기 - 글감 정하기 - 글감 브레인스토밍	* 역할분담과 협업 * 브레인스토밍 * 포스트잇 활용 기법
3	설악산 내용 생성 및 조직하기	- 인물, 배경 설정하기 - 전체 이야기 구성하기 (릴레이 작문 후 기록) - 전체 줄거리를 4장면으로 나누기	* 포스트잇 활용 기법 * 릴레이 작문 * 역할분담과 협업
4	금강산 표현하기	- 할당된 장면에 대한 구체적인 작문하기 - 점검표에 의한 수정하기 - 돌려 읽고 이야기 내용 확정하기	* 허용적 분위기 * 역할분담과 협업
5	백두산 완성하기	- 삽화 넣기 (시간적 여유가 있을 시) - 책(미니북)의 제목과 출판사 정하기 - 책(미니북) 완성하기 - 각 모듬의 이야기 소개하고 통일의 요소 발견하기 - 활동 소감 공유하기(5자 토크)	* 통일이야기의 공론화 * 포스트잇 활용 기법



나. 수업의 적용

(1) 대상

- (가) 1차: 3학년 전체 13명(남학생 8명, 여학생 5명)
- (나) 2차: 3학년 13명, 5학년 13명<sup>19)</sup>(남학생 6명, 여학생 7명)

(2) 일시

- (가) 1차: 2014년 5월 22일 (3학년), 수업 컨설팅<sup>20)</sup> (창의적 체험활동)
- (나) 2차: 2014년 5월 29일 (3학년), 2014년 5월 30일 (5학년),  
5월 4주 통일교육주간 활용(창의적 체험활동)

3. 수업의 적용 결과 및 해석

가. 학생 작품의 소개

대표 작품의 내용과 해당 작품에서 발견되는 통일과 관련된 내용 요소는 다음과 같다.

<표 IV-8> 학생들의 작품 내용의 소개

학 년	모듬 이름	제제	등장 인물	배경		줄 거 리
				시간	공간	
3	꿈나무	북한 식량난	삼다수, 민주, 스티븐 아저씨, 남한 대통령	현재	제주, 평양	북한 어린이들이 물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고 제주의 삼다수가 북한으로 떠났다. 가서 학생 소년 궁전에서 북한 어린이들과 컴퓨터 게임도 하고 학생소년궁전에서 나왔는데 마침 꽃제비 어린이들이 눈에 띄었다. 삼다수는 물을 나눠주고는 남한의 민주에게 전화를 건다. 남한 대통령께 북한 어린이와 함께 놀 수 있는 운동회나 캠프를 요청하도록 말하고 미국의 스티븐 아저씨께는 식량 자원을 보내달라고 부탁한다. 통일 운동회가 열리자 삼다수는 북한 사람들에게 물을 나눠주고 백두산 천지로 흘러들어갔다. 그 꼭대기에서 “통일이 돼자!”라고 외친다.

19) 연구자가 2013학년도에 담당했던 학급 학생들이다. 동일 수업을 다른 학년, 특히 작년 담당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2013학년도 한 해 동안 비교적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통일 수업을 실시하였으므로 학습자의 발달 및 배경지식의 상태에 따른 활동의 질적 향상을 알아보기 위한 의도였다. 5학년과 함께한 수업은 블록타임제로 운영하였으며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수업을 실시하였다.

20) 수업 컨설팅에서는 수업을 1차시 분으로 구성해야 하므로 ‘통일 이야기 짓기 수업’의 5단계 중 1~3단계를 활동하였고, 일주일 뒤 통일교육주간에 4~5단계를 하여 마무리하였다.

학년	모듬 이름	제제	등장 인물	배경		줄거리
				시간	공간	
5	대동단결	남북 축구 단일팀	남북한 축구 단일팀, 다른 나라 선수들	2022년 (미래)	서울, 월드컵 경기장	다시 한 번 열린 한국에서의 월드컵에서 남북 단일팀이 꾸려졌다. 그리하여 경기 운영을 잘 하고 있는데 16강, 8강, 4강까지 거치고 마지막 결승을 앞두고 있는 때 갑자기 남북한 분위기가 일어난다. 감독과 다른 선수들이 남한과 북한이 합치면 뭐든 할 수 있다고 격려하고 응원석에는 응원의 물결이 가득하여 마침내 남북한 단일팀은 결승에서 승리를 하게 된다.
	보리밥	남북 기자	이정은, 홍규원, 홍민지, 지석	2056년 2014년 (미래 현재)	SNM 방송국, 통일 박물관, 남북 휴게실, 38선	남한 출신인 정은이와 북한 출신인 규원이는 625 기념일을 맞아 프로그램을 제작하라는 제의를 받는다. 둘은 북한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없어 통일 박물관에도 갔다가 38선 근처의 남북휴게실에 갔다. 졸려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깨어보니 둘은 2014년으로 돌아갔다. 당시에 도 지금처럼 분단 상태였는데 지금보다 훨씬 말이 잘 통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있는 때였다. 정은이와 규원이는 경제 격차도 너무 벌어지고 사람 수도 심하게 차이나는 2056년의 현실과는 다른 2014년을 떠올리며 하루 빨리 통일을 이루었다면 얼마나 좋을지 후회하였다. 그리고 통일된 미래는 어떨지 생각하며 이야기는 끝난다.

본격적인 이야기 짓기 활동에 앞서 학습자의 배경지식의 형성을 위해 통일 애니메이션, 통일 동화책을 소개하였다. 이와 같은 영상이나 동화는 내러티브 속에 남북한 통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학생들이 지을 이야기의 구조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기존 작품과 학생들이 만들어낸 작품의 구조 의도가 일치하다는 것이다. 즉 각각의 작품은 통일 내러티브 '구조'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 독자로 하여금 통일에 대한 의지가 형성되도록 한다는 '의도'가 같다는 점에 기인하여 학생들의 작품 역시 사전활동 자료와 상당히 유사한 방향으로 흐를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나름의 독창적 이야기 구조 속에서 자신들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다. 그들 작품에서 남북한 스포츠 단일팀이나 남북 기자, 삼다수 이야기와 같이 매우 참신한 제제가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낙관적인 통일 미래를 그리는 것이 아닌, 불행한 미래를 상정하고 이러한 미래를 피하기 위해 통일을 해야 한다는 새로운 이야기 전개 구조도 보였다.

물론 사전 활동의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대부분의 모듬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주인공들의 모습이 보였는데 이는 이전에 접한 애니메이션의 영향일 것이라 예상된다<sup>21)</sup>. 긍정적인

21) 기차를 타고 시간 여행을 한다는 내용은 통일부 통일교육원 멀티미디어 자료 중 “통일로 가는 기차”라는 애니메이션 내용과 흡사하다. 이는 시간을 넘나드는 기차를 탄 혜진이가 통일이 된 한국의 미래와 여전히

측면으로는 3학년들의 작품에서 '학생소년궁전'이나 '꽃제비'와 같은 북한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소재들이 활용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들은 수업 전 꽃제비와 관련된 동화책을 접하였고 인정 교과서에서 배운 북한 어린이의 생활 모습을 이야기에서 활용하였다.

다음은 각 작품에서 발견되는 통일과 관련된 내용 요소이다.

<표 IV-9> 학생 작품에서 발견되는 통일과 관련된 내용 요소

학년	모듬 이름	세계	통일과 관련된 내용 요소
3	꿈나무	북한 식량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식량 지원</li> <li>- 학생 소년 궁전 등 북한 어린이의 취미생활 관련 내용으로 북한이 마냥 동정의 대상이라는 편견은 가지고 있지 않음</li> <li>- 꽃제비 어린이들의 등장과 이를 도와야겠다는 의식</li> <li>- 통일 운동회, 캠프 개최</li> <li>- 통일의 문제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님을 나타냄(스티븐 아저씨(미국인)의 도움)</li> <li>-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반도를 배경으로 하는 지리적 총체성</li> <li>- 통일의 필요성 피력</li> </ul>
5	대동 단결	남북 축구 단일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 단일 스포츠팀 구성</li> <li>- 남과 북의 심리적 이질감이 융합의 결립돌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함</li> <li>- 화합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둘이 힘을 합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강한 메시지</li> </ul>
	보리밭	남북 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출신의 기자의 등장 (남한의 사회에서도 북한 출신의 기자를 임용할 수 있다는 포용적 관점)</li> <li>- 이야기의 혼한 전개 양상처럼 희망적 미래를 그린 것이 아닌, 분단이 지속될 경우 사태가 더 악화될 수 있으니 조속히 통일을 하자는 새로운 전개 양식으로써 통일의 필요성 피력</li> <li>- 통일된 미래를 상상해본다는 여운을 남김</li> </ul>

이와 같은 통일 관련 요소들은 교사가 작품에서 추출하여 제시한 것이 아니라 수업의 마무리 단계에서 학급 전체가 함께 찾아보도록 했다. 의도하지 않았던 통일의 요소인데 급우들이 발견해주었다고 좋아하는 학생도 있었고 자신보다 학년이 낮은 학생들이 읽었을 때는 통일과 관련된 본인의 의도를 알지 못할까 우려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즐거운 상상으로써 통일 이야기를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비교적 통일과 관련 없는 이야기를 지은 모듬에서도 마지막 공론의 단계에서는 진지하게 통일 관련 요소를 찾아보고 통일 의지를 다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수업자의 의도가 적용된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보인다.

분단국가인 한국의 미래를 함께 보며 통일의 이득과 분단의 폐해를 알게 되고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는 내용이다.

## 나. 수업자 측면에서의 적용 결과

### (1) 교사의 역할

통일 이야기 짓기 수업을 시작하기 전 세운 기본 원칙은 교사의 개입을 최소한으로 한다는 것이었다. 해당 수업의 본래 취지가 통일과 관련된 상황을 생생하게 그려보며 통일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사의 개입이 많아지면 목적의식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에서였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이 이야기가 통일이라는 틀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지킴이 역할 외에는 이야기 짓기에 참여를 자제해야 했다. 대신에 교사 개입의 충동을 억제하고, 문답으로써 학생들의 무의식에 내재한 통일 이야기의 신선한 소재들을 유도해내는 시도를 하였다.

### (2) 학생의 역할

5월 22일 3학년 수업 컨설팅 결과 수업에 대한 긍정적인 면으로 평가된 부분이 바로 무입승차하는 학생이 없다는 내용이었다. 컨설턴트들은 3학년이기 때문에 이야기 짓기 활동 자체가 어려울 수 있고 게다가 모두 구성원과의 협동 능력도 요하기 때문에 아직 사회성이 발달하지 못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엔 무리가 있을 것이라는 편견이 있었다고 했다<sup>22)</sup>. 그러나 글을 제대로 깨우치지 못한 학생마저도 이야기 만드는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며 그러한 우려는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는 평이 있었다. 이야기의 질은 둘째치더라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 그 자체로도 활기찬 수업이 되었다는 것이다. 5학년 학생들 역시 이야기 짓기를 힘들어하는 학생을 도와주고 모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했다. 협동 작문의 과정은 모든 이의 의견이 반영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자연스러운 협업이 가능했다. 글감을 정하는 데서 시작하여 릴레이 작문까지 협력이 기초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학습자들은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려고 노력했으며 처음에 이야기 짓기에 흥미가 없던 학생들도 결국에는 자신의 역할을 해내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 (3) 수업의 한계

3학년과 5학년 수업의 차이는 학습 수준에서부터 드러났다. 통일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쪽이 이야기 짓기에 수월했다는 것은 자명했다. 배경지식과 발달상 격차로 글감 선택의 폭이나 작품의 양과 질이 차이가 났다. 따라서 저학년보다는 고학년에 적합한 수업 방식이라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아울러 통일 이야기 짓기에서는 우연하게 떠오른 단순한 서사적 요소 대한 영감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이는 통일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통일에 대한 기초 학습이 바탕으로 하였을 때 이야기의 질이 격상된다는 사실이다. 학습자의 배경지식 수준이 이야기의 질을 좌우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본 수업에 대한 큰 효과를 기대한다면 한 학기 내지 한 학년 간 다양한 통일 수업을 행한 뒤, 그것에 대한 정리-심화 활동으로써 통일이야기 짓기를 하는 것이 필

22) 수업컨설팅에 참여한 컨설턴트는 연구자가 소속된 교육청 장학사, 교감 2명(연구자가 근무하는 본교, 타교), 교장(본교) 총 4명이었고, 해당 내용은 수업이 끝난 이후 컨설팅 협의 과정에서 나온 내용의 일부이다.

요하다고 본다.

시간문제와 더불어 보충되어야 할 부분은 바로 수업의 기법 측면이다. 본 수업에는 통일에 관한 이야기를 그룹의 구성원과 힘을 합하여 지어보도록 하는 협동 작문법이 활용되었고 의사소통의 효율화를 위하여 브레인스토밍이나 포스트잇을 사용하는 등의 기법을 투입하였다. 그러나 여건이 마련된다면 통일에 대한 명상 기법을 활용하여 수업 도입 부분에 활용하거나 스마트 패드를 활용하여 스마트 교육 기법을 적용시켜 보는 방법도 효과적일 것이다.

**다. 학습자 측면(소감문을 중심으로)**

<표 IV-10> 학생 소감문 발췌 내용

수업 소감 분류	학습자 소감 내용
학습에 대한 흥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구들이랑 이야기 만들기가 재밌었다. (3학년 A군)</li> <li>- 통일 이야기 짓기가 힘들기도 했지만 재미도 있었다. (5학년 B군)</li> <li>- 통일에 대해서 재밌게 배웠다. (5학년 C양)</li> </ul>
학습의 고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쓰기가 어려웠다. 아이디어 내기가 어려웠다.(3학년 D군)</li> <li>- 무엇에 대한 주제를 정할 지가 제일 오래 걸렸는데 시작하니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나왔다. (5학년 B군)</li> <li>- 글쓰기 전에는 싫기도 하고 귀찮기도 했는데 해보니 그냥 할 만 했다.(5학년 E군)</li> </ul>
작가가 되는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가가 된 것 같아 재밌었다. (3학년 F양)</li> <li>- 다른 사람이 자신의 모듬의 글을 읽는 다고 생각하니 신중해졌다. (5학년 B군)</li> <li>- 다른 사람들도 우리 책을 읽고 통일이 됐으면 한 생각이 들면 좋겠다. (5학년 B군)</li> <li>- 통일에 대해 배우고 나서 글짓기를 했는데 우리가 생각해도 이야기를 잘 지어낸 것 같다. (5학년 G군)</li> <li>- 다른 모듬이 우리 모듬보다 더 잘한 것 같다. (3학년 D군)</li> </ul>
협력의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사람의 의견이 다 들어가도 이야기가 만들어지는게 신기했다. (3학년 E양)</li> <li>- 도와주니까 그래도 해내었다. (5학년 E군)</li> <li>- 글을 못 쓰는 친구가 있어서 힘들었는데 우리 모듬 모두가 달라붙어서 같이 이야기를 만들었다. 개가 그림은 잘 그려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5학년 B군)</li> </ul>
상상력의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짜 통일을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3학년 E양).</li> <li>- 상상을 해서 좋았다. (3학년 D양)</li> <li>- 처음에는 통일에 반대했는데 막 상상하다 보니 진짜로 된 것 같았다. (3학년 D군)</li> </ul>
통일 문제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한 문화가 너무 달라졌으니 갑자기 통일이 되는 건 힘들 것 같으니 우선 대화하고 서로 문화 개방부터 해야 한다. (5학년 G군)</li> </ul>
통일 의지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이 열린 되어 남북한이 같은 축구팀으로 월드컵에 참가 했으면 좋겠다.(5학년 B군)</li> <li>- 통일이 되어서 힘든 일이 없어지면 좋겠다. (3학년 E양)</li> <li>- 통일을 이루어서 꽃제비 어린이들이 사라졌으면 좋겠다(굶주리는 이가 없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서). (3학년 C양)</li> <li>- 북한을 마음대로 여행하고 싶다. (5학년 H군)</li> <li>- 하루 빨리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3학년 B군, C양)</li> </ul>

수업자 소감을 분석해보건대 종합해보면 학생들은 글짓기 자체에 대한 인지적 부담, 작가로서의 정서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으나 글짓기의 부담은 모둠원과의 협력으로써 어느 정도 상쇄되는 측면이 있었고, 작가로서의 부담감은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작품의 질을 높이는 데 일조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아울러 통일된 미래를 상상하며 통일에 대한 의지를 다지기도 하고 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서를 발견하기도 하였다. 무엇보다도 학습에 흥미를 가진 학생이 많았던 것으로 보아 남북한 통일에 대한 관심의 회복이라는 본 수업의 취지와 상당 부분 부합되었다고 판단된다.

## V. 결론

과학만능주의가 팽배한 이래 교육현장에서는 정의영역보다 지식과 기능 측면 강조되는 경향이 있어 왔다. 이는 자연스레 통일교육에도 영향을 끼쳐 상대적으로 남북한 통일 내용에 관한 지식이나 문제해결력 등 인지적 영역에 교육의 초점이 맞춰져왔다. 그러나 모름지기 교육이란 학생을 전인으로 성장하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하며 같은 맥락에서 통일교육 역시 인지·정의·행동 영역을 아우르는 총체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작금의 통일교육에서는 여러 측면에서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중에서도 통일교육의 내용과 방법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학습자의 삶과 유리되지 않은 교육 내용과 흥미로운 강의 방식을 통한 초등학교 통일교육 개선의 대안으로서 어떻게 수업을 구안할 수 있을까?

본 연구는 통일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상상력'에 초점을 둔 수업을 구상하였다. 자신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심지어 재미없는 수업이 되기도 하는 통일 수업에 상상력을 불어넣고자 했다.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구체적인 수업의 공간을 떠올려 보면, 내러티브를 활용하는 통일 수업이 그 방안이 될 수 있다. 본래 인간은 내러티브로써 경험을 자신의 삶과 연관 짓고 이해해왔으므로 내러티브 방식은 삶의 이해의 친숙한 방식이 되었기 때문이다. 내러티브를 통한 일상과 맞닿은 통일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수업의 이상과 현실 세계의 괴리를 줄여줄 수 있다. 단, 이미 생산된 텍스트 활용에서 나아가 이야기를 직접 지어보는 과정이 보다 생생한 통일 수업이 가능하도록 이끌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능동적인 내러티브 활용 수업을 구상하였다.

내러티브의 통일교육 효과를 토대로 이야기 짓기 과정에 차용한 교육 원리는 과정 중심 접근의 쓰기지도와 협동 작문법이다. 과정 중심 쓰기 지도는 학습자 스스로가 구성하는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개인차를 고려한 활동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수업 활동의 과정에 초점을 둔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 의사소통을 함의하고 있어 타인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통일교육에의 가치 있는 활용이 될 것이다. 아울러 '통일 이야기 짓기'가 개별 활동이 아닌 협

동 글짓기 이므로 협동 작문 방법을 학습 과정에 활용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아동의 사회성을 함양시키고, 미래 통일 사회의 혼란 속에서도 다양한 이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공동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연습이 된다는 점에서 통일교육 효과 제고에 일조할 것이다.

위와 같은 작문법을 바탕으로 ‘통일 이야기를 짓기’ 수업을 5단계로 설정하였다. 이는 ‘배경 지식 활성화하기(한라산 단계)-계획하기(지리산 단계)-내용 생성 및 조직하기(설악산 단계)-표현하기(금강산 단계)-완성하기(백두산 단계)’인데, 각 단계에 맞추어 수업을 구성한 뒤 이를 각각 3학년과 5학년 학생에게 적용하였다.

각 단계에 따른 수업의 결과를 수업자 측면에서 분석해보면 우선, ‘통일 이야기 짓기’ 수업을 위하여 교사의 역할이 막중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들로 하여금 통일 이야기 짓기 과정을 통해 통일 의식과 관심을 제고시키는 것이 수업의 목적이라 한다면 그 목적의식이 훼손되지 않도록 교사의 개입을 최소화 시켜야 하는 것이다. 교사의 개입이 많아질수록 수업에 대한 학습자의 자주성이 결여될 것이고 이는 교사 주입식 교육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절한 질문을 통해 학생들이 이야기 짓기의 본질을 잊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수업자의 역할이 강조된다.

교사의 역할과 더불어 학생의 역할도 중요했다. 수업의 결과, 모든 학생이 글쓰기에 흥미를 보인 것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능력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이 모둠 활동에 협조하였다. 집단 활동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는 것, 사회적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는 것 등은 글짓기 역량과는 별개로 본 수업에서 요구되는 학생의 역할이었다. 이는 미래의 통일 사회에서 다양한 특징을 지닌 타인과의 소통을 대비한다는 점에서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한편 학생의 모든 작품에는 저마다 통일과 관련된 내용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는데 예컨대, 통일의 이점을 설명하는 것, 통일된 미래를 그려보는 부분, 북한의 실상에 대한 소개, 남북의 동질성 확인과 같은 것들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통일 관련 요소들을 학급 전체가 함께 찾아보며 통일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통일 관련 내용 요소를 찾아내는 과정 역시 이야기 짓기 단계 못지않게 학생들의 통일에 관심 제고에 일조하기 때문이다.

수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는 학습자의 수업 소감에서 드러났다. 3학년과 5학년의 수업 소감 중 비슷한 내용으로 엮어 알아보았는데, 우선 학습에 대한 흥미는 대부분의 학생이 소감문 서두에 밝힌 내용이었다.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힘들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즐거운 활동이 되었다는 것이다. 반면, 학습의 고충으로는 주제 정하기, 아이디어 내기, 글쓰기가 어렵다는 의견과 글쓰기 자체가 귀찮았으나 막상 하니 할 만 했다는 의견이 있었다. 대체적으로 작문 활동에 대한 부담을 표현하였는데, 이는 주변 친구들의 도움으로 해낼 수 있었다는 소감으로 미루어 짐작하건대 협력 활동으로 이러한 부담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보인다.

한편 작가가 되는 경험 영역에서는 이를 통해 즐거웠다는 학생과 글쓰기가 신중해졌다는 학생의 의견으로 나뉘었다. 후자의 경우 이것이 상상력이나 글쓰기를 제한시키는 데 까지 영향을 미쳤다가보다 독자를 상정함으로써 오히려 자기 모니터링의 효과를 낸 것이라 보인다. 이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글을 읽는다고 생각하니 글짓기가 신중해졌다는 학생이 본인의 책을 읽고

다른 사람들도 통일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지녔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소감을 이어 하는 것을 보면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외에도 활동을 통해 협력의 경험을 하였고 상상력의 제고되었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또한 글쓰기를 하며 통일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을 탐색하기도 하였고 결과적으로 통일의지가 생겼다는 의견들을 보이고 있었다. 본 수업의 목적이 통일에 대한 관심의 회복과 통일의지의 형성이라고 보았을 때 통일 이야기 짓기를 통해 어느 정도 목표 지점에 도달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긍정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수업의 한계는 발견된다. 우선 무엇보다도 수업을 이끄는 교사의 관심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고 이것이 수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학습에 대한 교사의 직접적인 개입은 지양되므로 학습자로 하여금 스스로 해당 내용을 발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치밀함이 요구된다.

다음은 시간 투자의 문제이다. 수업을 한 결과 시간 투자와 수업의 질은 비례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사전활동에 투자를 많이 할수록 질 높은 통일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이러한 성취감은 통일에 대한 가능성과 진지한 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때문에 통일 이야기 짓기 수업은 한 학기 내지 한 학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뤄진다면 더욱 효과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통일 이야기 내용을 생성할 때 불가피하게 생기는 궁금한 사항, 예컨대 북한 주민 생활 모습, 분단의 과정 등을 스스로 탐구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의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본 연구의 3학년 수업에서는 시간 문제와 더불어 저학년의 수준이 통일에 대한 자료를 찾기에 미흡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작문 과정 중 궁금한 점에 대해 교사가 답변해주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자기주도적인 통일 내용에 대한 탐구가 가능하다면 통일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므로 이야기 짓기 시간을 충분히 주어 스스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진정한 통일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는 길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다 많은 학생에게 통일 이야기 짓기 수업을 적용하여 수업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더욱 체계적인 이야기 짓기 과정이 되도록 하고, 보다 생생하게 통일 상황을 그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법과 수업 전략을 앞으로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강한균, 김희용, 김두규. (2011). 스토리텔링 기반의 교수-학습 과정안 구안 및 현장적용 가능성 탐색-고등학교 수학과 집합단원을 중심으로. **수산해양교육연구(23)**. 302-318.
- 김병성. (2011). 통일시대를 대비한 학교통일교육. **제주지역 학교통일교육발전 워크숍 자료집**. 77-101.
- 김영식. (2011). 범교과적 통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1 학교통일교육 발전방안과 사례**. 3-26.
- 박영목. (2002). 협상을 통한 의미 구성과 협동 작문,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107)**. 101-133.
- 박영목. (2007). 작문지도 모형과 전략. **한국어교육학회지(124)**. 181-215.
- 박영목. (2008). **작문교육론**. 서울: 역락.
- 변종현. (2012). 초등학교 도덕과 통일교육의 비판적 검토. **초등도덕교육(39)**. 63-94.
- 변종현. (2014). **남북한 관계와 한반도 통일: 성찰과 논의**. 서울: 인간사랑.
- 손연정. (2004). **설화 제제와 과정 중심 전략을 활용한 창작 교육**.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손유정. (2009). **뇌과학에 기반한 내러티브의 사회과 교육적 함의: '장소 학습'을 사례로**.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오기성. (2012). 학교 통일교육의 주요 방향에 대한 성찰. **통일문제연구(57)**. 187-219.
- 오택환. (2007). 협동 작문의 단계와 절차 탐색. **국어교육학연구(29)**. 229-253.
- 윤용상. (2002). **초등학교 통일교육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규호. (1988). **말의 힘**. 서울: 좋은 날.
- 이미식. (2004). 학교 통일교육의 실태와 과제. **국민윤리학회집(15)**. 145-161.
- 정택준. (2013). 통일교육의 효율화를 위한 '통일의 필요성 수업 모형'연구. **한국윤리학회 윤리연구(88)**. 301-322.
- 정향석. (2003). 학생들의 통일의식과 통일교육의 실태분석, **호남정치학회보(15)**. 103-128.
- 조정연. (2008). **책 읽어주기의 뇌과학적 이해와 교육적 시사점**.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대학원.
- 최시한. (2009). 스토리텔링 교육의 방법 모색-스토리와 그 '처음상황' 설정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24)**. 419-437.
- 최영표. (2004). **초등학생의 통일의식과 통일교육 실태**.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국내학술회의. 15-36.
- 최지현, 서혁, 심영택, 이도영, 최미숙, 김정자, 김혜정. (2007). **국어과 교수·학습 방법**. 서울: 역락.
-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3). **2013 통일교육지침서**.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 황은실. (2011). 초등학교 통일의식 분석을 통한 학교통일교육의 방향과 과제. **제주지역 학교통일교육발전 워크숍 자료집**. 51-74.

<abstract>

## Unification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 through 'Making Unification Story'

Kim, Rae Yeong(JEJU Gwakgeum Elementary School)

The aim of this paper is devising a model of instruction about unification in elementary school using narrative which shows imagination because imagination raises realism and has positive effects on the internalization of need for unification. Therefore It's devised and applied with an expectation that making unification story will experience self-directed learning and will be more interested in the class.

To see the process of this study, it analyzed the current unification education and tried to find out effectiveness of unification education with narrative. In addition, this model of instruction adopted process-based writing approach and collaborative writing technique to make it concrete and systematize. Through this process, the model of instruction about making unification stories have been developed and applied to students and then its effect have been analyzed through looking at contents of unification found in students' writing and their reviews about this model.

<Key Words> unification education, making unification story, narrative, storytelling, process-based writing approach, collaborative writing technique.